

## 2020년 12월 6일 "아브라함이야기(13) 하나님의 기쁨의 맹세를 받은 사람"(창 22:12-19)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두가지를 말합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더욱 부으시는 사랑과 기쁨입니다. 이 두 측면을 이해하면 주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는 자녀의 존재에 대해 깊은 사랑을 갖지만 힘든 중에도 부모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과 행위를 보일 때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 차원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 [1] 하나님의 사랑

**요 14:21**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적용하여 rephrase 해 본다면,

'말씀을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존재에 대한, 그리고 순종의 행위에 대한 사랑이 크신 사랑의 실체 안에서 곁을 달리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 온전한 차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 22:12**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성경에는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저주하고, 구원을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들을 안정시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부족 신들에 의지하는 종교적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독선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대우에 대한 응답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신전에 들어가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백성의 행함에 합리적 대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행함이 옳고 가치 있으며, 어떤 행함이 죄를 조장하고 저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기준을 성경을 통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어떤 태도와 행동을 가지면 칭찬받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행위 대로 갚아주겠다는 성경 말씀은 저주성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합당하고 진리대로 행했으면서도 칭찬받을 일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까지 수많은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오늘 나를 보실 때에는 그것을 셈에 넣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제를 기억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실 성품과 행동으로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 [2]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 그리고 맹세

아브라함을 보세요. 적지 않은 실책과 과오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획을 지연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2:3 아침 일찍 일어난 그날부터 3 일 간 모리아 산에서 보여드린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평생을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처럼 느끼게 합니다.

**12 절** '...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16-18 절** '내가 친히 맹세한다. ...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쁨, 칭찬, 높임, 복을 부으시겠다는 맹세의 의지입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먼저 향유하지만,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모든 민족(우리도 포함)이 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은 그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한 언급은 없고, 브엘세바로 길을 돌아가 살았다고 말합니다(**19 절**). **21:33**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가 불렀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확신했던 것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드렸더니 잃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 더 큰 복을 부어 주셔서 다시 돌려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으로 인하여 더욱 놀라운 유업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히 11:17-20 참고**).

### <맺음>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것을 당신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맡길 때 마치 그것을 잃은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의 유업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우고 행하여 복된 유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 를 생각해 보세요.
2.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가정 뿐 아니라 세상의 차원으로 부요해질 정도임을 알았다면 나 또한 주님께 순종하여 맡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